116회 대공연 합평회

김은별

1. 캐스트

-캐스트나 연출진이 프로페셔널하지 못했다. 사적인 감정에 흔들려 공연에 집중하지 못했다. 힘들어서 요령을 피우는 모습도 보였다. 전체적으로 즐겁지 못한 분위기였다. 연출진이 힘들어했는데 캐스트들이 자연스럽게 눈치보고 기가 눌렸다. 조금 더 대화를 나누고 웃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공연 후에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공연중에 해야하는 일이 너무 많았다. 빨리빨리 하라고 소리 지르셨던게 좀 그랬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데 연출진과 캐스트들 간의 불신이 팽배했다. 공연 당일날 너무할일이 많아 정신이 없었다.

-스탭들이 동방을 자주 찾아주셔서 공연진 간의 친밀감이 매우 좋았다.

-초반에 콜타임을 연출진이 지키지 않아 신뢰가 점점 무너진 것 같다. 처음부터 연출진이 캐스트를 너무 불신한 것 같다. 캐스트 간의 위계질서도 생겼던 것 같다. 율전 공연부터 분위기가 다운되었는데 4시 공연이 망한다라고 생각할수록 서로 으쌰으쌰 해야하는데 너무 강압적으로 에너지를 올리라고 하셨던 것 같다. 피드백도 이해되지 않는 지시들도 있었다.

-연출진의 언행이 조심스럽지 못해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캐스트들이 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캐스트와 연출진은 수직관계가 아니다. 공연 이외에도 연습에서 듣기 힘든 언행들이 많았다. 경험이 많은 캐스트들을 차별하는 것 같았다. 캐스트들에게 전할 이야기들은 전체에게 전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또한 연기 트레이닝에서도 느껴졌다. 공연 당일에 연출진 이외에도 여러가지 공연진들의 디렉을 받기 힘들었다.

+이럴거면 캐짱을 왜 뽑았다 싶었다. 허수아비가 된 느낌이었다.

-캐스트라는 집단에서 어느 누군가는 선배로서 분위기를 잡아야한다고 생각했다. 위계질서나 위화감처럼 느껴졌다면 죄송합니다.

-공연진에게 더 열심히 못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캐짱에 대한 믿음에 불신이 생겼다. 또한 여러가지 상황들 때문에 캐스트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 연출진의 언행이 너무 심했다. 인간으로서의 대우도 아니었던 것 같다.

연출진들이 캐스트들에게 욕하는게 왜 당연했는지 모르겠다.

2.무대

-명륜 첫공 때 무대 설치가 너무 늦게 마무리가 되서 너무 죄송했다. 무대팀 때문에 더 좋은 공연이 못나와서 미안하다. 율전 공연 때 무대팀들이 전원 열심히 참여는 안해서 안타깝다. 연습을 보는데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었다… 극이 너무 어려웠다. 무대는 남자 인원이 4명은 필요한 것 같다.

-연출님이랑 더 이야기 해볼 시간이 많치 않았다는 것 (연출 > 캐스트 >> 스텝) 특히 나는 절실히 와다왔다. 그들이 나한테 뭐라 강요하진 않았지만 나는 그저 그들이 말한대로 움직이는 로봇이었다… 그래도 재미를 본 로봇이었기에 나쁜 감정은 없었다

3.조명

-선배없이 신입생들끼리 올려서 힘들었다. 조명 수리를 할 것도 많았고 감전도 당하고 화재도 있었다. 오퍼를 봐야하는 날 캐스트와 선배와 내가 혼자 바를 타고 에어리어를 잡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조명팀에게 원망감이 컸다. 하지만 합평회가 다가올수록 내가 문제인걸 깨닫고 미안한 마음이 점점 커졌다. 모두가 너무 수고한 공연이었고 감사하다. 컨펌이 공연 직전에 이뤄져서 아쉽다.

-연출진과 스탭간에 소통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스탭회의를 통해 연출진이 결정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설명해주면 좋겠다.시연회 날 알게 된게 많아서 당황스러웠다.

-스탭의 특성인 것 같은데, 인수인계서를 아무리 읽어도 뭘 해야 할지 잘 감이 안잡힌다.게다가 시연회나 공연 같은 날에는 선배가 없으면 마비가 된다.

선배들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이건 팀별로 알아서 잘 하면 된다.

-스탭 숙제(?) 같은건 미리 전달해주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스케쥴이 바빠서 주말 지나고 과제를 받으면 스탭회의까지 완성하기 조금 빠듯했다.

-오퍼 실수들 정말 죄송하다.다만, 오퍼가 마냥 쉽지 않다는 걸 다들 인식해주었으면 한다. 그래도 다들 화내지 않아주셔서 감사했다.

\*무대철거 때 라인 정리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바 타는 걸 누군가는 배워서 했으면 좋겠다.

4.음향

-연출님이 이전 공연보다는 발전했다고 느꼈다. 무대감독님이 중간에서 소통을 도와주셨던 것 같다.

-공연 당일날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서 불편했다. 정신이 없어도 말투를 차분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작품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다.

-컨펌을 빠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큐에 대한 애매한 지시사항들이 많았다. 정확한 피드백이 필요하다. 일 분배가 잘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던 공연이었다.

5.의소분

-첫 공연이었는데 재미있게 공연을 할 수 있었다. 일정이 늦어지면서 수정분장이나 특수 분장을 못했었던게 아쉬웠다. 의상 컨펌이 늦어졌다.

-의상팀, 소품팀을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품을 제대로 돌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공연이 끝나고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기획이 날을 잡아서 돌려주는 날을 정하면 좋을 것 같다)

\*학기마다 안쓰는 화장품을 모으는 날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6.무대감독

이 자료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피상적이며, 편향된 사고에서 작성되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처음 무대감독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작품이 좋아하는 작품이어서 였다. 그만큼 망가뜨리지 않고 잘 만들고 싶었다.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번 대공연에서 나는 연출을 하고 싶었고 논란과 경합, 그리고 여러 번의 대화 끝에 결국 연출의 자리를 양보했던 만큼 당분간 발길을 쉽게 못하겠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못하게 하는 작품이었고 그게 무대화된다고 했을 때 정말 잘하고 싶었다. 공연이 진행되어 오면서 여러 방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사실 많이 없다. 그 중에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은 스텝끼리 친해지게 하기 위해 대화의 장을 많이 열려고 했던 점이다. 인수인계서에도 작성했듯이 공연진끼리의 친밀감은 아주 중요하다. 나는 서로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로 대화의 장을 많이 열고 많이 만나고 많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조 과제같이 느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적절한 수다를 섞어가면서 하느라 시간 소비가 많이 되기도 했고 금전적인 소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공연진이 누구 하나 서로의 소식을 모르고 진행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했던 점으로 꼽았다.

아쉬웠던 점은 정말 정말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나이가 깡패였다는 점이다. 그러려고 했던 적은 없지만 모두가 나의 말에 무게를 느꼈을 게 분명했다. 이는 연출 경합을 하면서 정말 많이 많이 느꼈기 때문에 무게가 실리지 않도록 하느라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나이는 또래이고 경험만 많은 것이었다면 차라리 훨씬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여러 번 했다. 또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모든 스케줄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아쉽고 죄송스러웠다. 어느 순간 스텝들이 나에게 의지를 많이 한다는 것이 느껴졌지만 개인 스케줄에 관한 문제로 모든 공연 일정에 참여하지 못해 조금 더 효율성있는 작업들이 많이 되지 못한 것 같아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

또한, 연출과의 신경전이 있어 많은 스텝에게 혼란을 야기시킨 것 같아 이 부분도 죄송하다. 물론 이런 신경전 때문에 스텝들도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부분이 생긴 것은 다행이지만 분명 많은 혼란과 작업 일정의 딜레이가 발생했다. 좀 더 연출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대화가 되지 못해 죄송하다. 연출 스스로가 상상력 부족이라는 말을 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대화 방식을 좀 더 빨리 효과적으로 했었어야 하는데 좀 많이 아쉽다.

명륜공연까지는 나름 복작복작대면서도 잘 진행이 되어왔던 듯 한데 율전공연에서 흐름이 끊긴 것 같다. 쉬는 동안 쉬는 게 아니라 준비기간이었음을 인지했어야 했다.

명륜공연: 매공연마다 합이 잘 맞아떨어졌던 공연. 처음엔 엉망으로 시작했지만 매회 공연마다 적응하며 발전했고 집중했다. 막공이 멋졌다.

율전공연:준비과정부터 삐그덕됐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막공때 스텝들 고생한 거 알지만 극의 분위기를 깨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관객들이 커튼콜 노래 왜 그러냐고 말하더라.

캐스트:연습 초중반에 자신과 연출의 방향이 얼마나 다른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의심을 많이 안했던 것 같다. 실제 무대에서는 괜찮았지만 좀더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아쉬웠다. 캐스트도 자기 생각을 좀 더 어필해보고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보여주는 연습과정이 되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캐스트가 연출이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깐.

의소분: 의상선택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방법을 잘 찾은 것 같다. sns활용 굳. 헤어와 의상의 연결성은 좀 아쉬웠지만 무난했다. 제일 아쉬운 점은 나이대의 표현이다. 나이가 들어보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이차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

음향: 다른 팀에 비해 일의 분배가 조금 덜 되어 있는 느낌이긴 했지만 별로 할 말은 없다. 잘했다.

조명:많이 힘들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큰말없이 다 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막공때 오퍼는 조금 신중하게 해주었으면 좋았을 뻔.

무대:실제 작업이 다소 늦게 시작된 감이 있다. 그리고 가끔 연락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필요했다.

기획: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초중반에 구체적이지 않았다. 그에 대한 인지가 되었으면 좀 더 조심하지 않았을까? 일단 그래도 많이 쓴 건 미안.

조연출: 너무 연출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개인의 의견이 없는 느낌이었다. 좀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았을 것 같다. 연습과정에서 조연출이 캐스트에 끼치는 영향력이 너무 약해 잘 보이지 않았다. 조연출이 스스로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연출: 공연 초반 연출을 하려는 의도에 맞게 공연진과 많은 대화와 배려를 하려고 한 것은 보였지만 작품에 대한 이해보다는 로망이 커보였다. 공연 후반으로 갈수록 고집을 부리지 않는 면은 나아졌지만 캐스트연습에서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파악은 되어 보이지 않았다. 연출을 하고자하는 의도나 방향은 좋았으나 그에 비해 준비가 부족했고 스텝으로서 공연에 참여한 경험이 부족했던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나는 연출은 부탁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대화하는 방식에서 꽤나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보였다. 처음 연출 경합시 나눴던 대화에서는 함께하는 공연, 모두가 동등한 관계라고 했지만 실은 연출 자체적으로 내제된 성향이 짙게 보였다. 나이에 따른 차이, 공연 경험에 따른 차이를 연출진 자체에서 아주 크게 느끼고 있는 듯 했다. 그나마 스텝에게는 신뢰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활발한 토론이 되었지만 그만큼 캐스트가 그 짐을 다 떠안았기 때문에 캐스트도 감정받이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스스로 준비부족이라고 느꼈고 이전의 선입견을 깨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에 평가받기를 두려워했고 오기가 고집, 아집으로 발전하면서 적절한 소통이 되지 못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연출의 고집이 있었기에 그에 만족하면서 적절한 방향으로 이룰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생각해낼 수 있었던 점이다.

연출에게는 묻고 싶다. 예전에,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말했던 원했던 공연이 되었는가 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연이 연출과 깊은 대화를 나눴을 때 앞으로 극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일원이 주축이 되는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선배가 없이는 소소하다고 여겨졌던 작업 하나도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는 극회가 경험적 특성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곳임을 인지하고 선배의 참여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그를 위해서는 서로간의 예의와 배려, 끊임없는 대화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느끼는 공연이었다.

 \*공연 당일에 무대감독이 상주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 스탭들이 일하는 곳에는 무감이 항상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7.연출진

조연출

1. 가장 먼저 춘천거기라는 연극을 연출진들의 그리던 모습으로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공연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연을 진행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조연출인 저의 불찰로 인해 공연 준비에 어려움을 드린 점 모든 공연진 분들께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2. 가장 먼저 연극에 대한 열정과 더 좋은 극을 만들기 위해 심사숙고 한다는 핑계아닌 핑계로 연출진의 컨펌이 늦어짐으로써 모든 스텝분들의 공연 준비의 차질을 빚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 무대감독님께는 무대감독님의 극에 대한 생각과 연출님의 극에 대한 생각을 제가 중간에서 잘 전달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번 공연이 올려짐에 있어서 연출진 선발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무대감독님과 연출님 사이의 의견 조율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두분들 사이에서 이번 공연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무대감독님과 연출님께 베타적인 감정을 드러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대 감독님과 연출님이 무대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에 저의 미성숙함으로 두 분 사이의 의견 차이를 적극적으로 좁히지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견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딜레이로 공연을 준비하는 모든 공연진들에게 피해를 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 무대 철야를 도와주신 모든 무대팀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율전 철야 다음날에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무대팀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였는데 그 전에 시간이 되는 무대팀 분들의 인원체크를 해야 했는데 그 전날에 인원체크가 되지 않아 무대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합니다. 허나 이도 철야날에 작업을 마무리 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대팀 작업인원 확보를 소홀히 한 연출진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사과드립니다.

5. 음향님 분들께는 이번 공연에 잘 어울리는 음향을 연출님과 함께 몇날 며칠동안 심사숙고하면서 골라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허나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마지막 공연에서 커튼콜음악이 저희가 약속했던 음향이 아닌 다른 음향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조연출로서 가지는 이번 공연에 대한 애정을 떠나서 마지막 공연을 보러오신 관객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6. 조명팀 분들께는 늘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전에 조명팀 활동을 해본 분들이 없음에도 늘 열심으로 조명팀 활동을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허나 조명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공연에 조명 오퍼가 저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바뀌어서 캐스트들을 당황하게 한 점, 두 달 동안 준비한 공연진들이 같이 맞춘 연극에 대한 약속에 대해 소홀히 한점, 마지막으로 관객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점도 연출진이 모든 공연진 여러분들과 연극에 대해, 그리고 우리 연극을 보러와주시는 모든 관객들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7. 의소분팀 여러분들 소품 구해주시고 의상 구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소분 팀 분들께는 첫공을 준비하는 와중에 수진 역 민주양의 의상이 매우 늦게 컨펌되어 공연 준비를 딜레이 시킨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케스와 족대 같은 소품들에 대해 쓸 지 말지에 대해서도 컨펌이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소분 팀의 일원을 공연 까메오로 출연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8. 기획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우선 저희가 극의 퀄리티를 너무 추구하는 바람에 재정적인 면을 많이 고려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기획팀 일원 중 한 분을 까메오로 섭외하는 과정에서 대화 중에 마찰이 있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팀과도 연극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벽이나 조명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로 일관했던 점 죄송합니다. 허나 철야 날에 선배님들과의 식사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들의 의견을 기획님의 입장을 배려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제대로 된 피드백이 오지 않은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9. 캐스트분들께는 캐스트여러분들과 연출과 캐스트 관계에 대해서, 연극에 대해서 이야기가 완벽히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월권 문제라던가 저희의 디렉팅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또한 캐스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연출진과 많은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연출진의 입장에서 어련히 캐스트라면 연극을 이렇게 대할 것이다 지레 짐작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캐스트 여러분 한분 한분 섬세하게 대하지 못한 점, 가끔 감정적으로 공격적인 어투를 구사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캐스트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두달간의 공연여정을 돌아보면서 참 아량없는 연출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두달간 잘 따라와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0. 마지막으로 연출님께 한마디 하자면 두달간의 연습일정에서 치과진료로 인한 불참이 너무 많았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치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멘탈이 몇번 나간적이 있어 연습에 차질을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유부단한 성격과 느긋함 때문에 의사결정에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저의 닦달을 받아주신 것 급할때는 밤새면서 같이 작업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11. 마지막으로 공연이 끝마칠때까지 노력해주신 모든 공연진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116회 정기 대공연 춘천거기의 조연출이었던 유찬희의 공연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연출

공연초반부터 연출로서 당황스러우면서도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았음. 여러 공연진들에게서 이번 116회 대공연 연출을 56기 박선준이 맡는다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와 불신을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표하는 경우가 많았음. 함께 공연을 하기로 하였고 각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으면 그 사람의 영역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번 공연의 피드백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의 것들이 대부분.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 및 공연당일 다른 스탭들이 캐스트들의 연기에 관여를 하는 모습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공연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의견이 있다면 직접 배우들에게 피드백을 주기보단 연출에게 전달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말하는 건데 마지막 공연 날 오퍼를 마음대로 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우리가 물론 고생을 했고 힘들었지만 마지막 공연도 공연이고 공연이면 관객이 있기 마련. 그 분들도 관객이기에 예의를 지켜야했음. 그 다음엔 연출의 컨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퍼의 변경이 있었다는 건 연출이라는 자리가 왜 있을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자리잡지 못한 것.

공연전체 피드백- 공연진의 대부분이 공연 그리고 연극에 대한 이해가 많이 아쉬웠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공연진 탓을 할 수는 없다. 몰랐기 때문. 그래서 공연을 여러본 해본 선배들이 이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하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고 극회라는 그리고 극회공연에 대한 것을 알려주면서 극회의 정체성을 찾아가야한다. 그렇기에 영란누나가 무대감독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 흔쾌히 받아들이고 고마웠다. 앞으로 공연에는 공연 경험이 많은 고학번 선배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

캐스트- 공연을 시작하다보면 경험차이가 있기 마련. 그리고 나이차도 있기마련. 하지만 상대 캐스트의 연기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혹여라도 나의 파트너가 내가 원하는만큼 적극적으로 해주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더라도 좀 어떻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는 식의 피드백이 가면 안된다. 그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음.

배우와 연출진은 강조하지만 동등한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계질서가 느껴지는 것은 공연이라는 것과 각자 맡은 역할의 차이가 있기에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는 배우트레이닝이라는 한달간의 과정이 있기에 더욱 느낄 수 밖에 없음. 하지만 느낄 수 밖에 없다는 변명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노릇. 연출진도 배우들이 그런것들을 느낄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더욱 더 편안해지도록 노력해야함. 마찬가지로 캐스트들도 본인들의 역할에 대해 인지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함.

\*연출진의 디렉팅이 연기적인 부분에만 너무 집중을 했다. 모호한 디렉팅이 많아 답답함이 있었다. 연극적인 피드백이 없었고 동선에 대한 의문을 품을 시간이 없었다.

\*연출진이 콜타임을 지키지 않았다. 서로가 약속시간을 지키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 신뢰를 바라면서 연출진의 믿음을 깎아먹었던 것 같다.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체벌 수준의 신체 트레이닝은 심했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하지 않고 연습을 진행했던게 안타까웠다.

\*캐스트들은 항상 연출이 아닌 조연출과 소통을 해야만 했고 더 오해만 쌓인 것 같다. 연출진의 생각이 유독 캐짱도 아닌한 캐스트만을 통해 전해졌던게 위화감을 느끼기도 하고 동등한 입장으로 전하는 말들이 아니라고 느껴졌다. 연출진이 뿜어내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너무 받았고 이유없는 짜증을 받아내는게 가혹하다고 생각했다. 4시 공연이 당연히 망할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연출진의 트레이닝 방법이 좋았던 점이 많았다.

\*스탭을 부하직원으로 대하는 것 같았다. 통보식이었던게 아쉬웠다.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셔야 했던 것 같다. 무대감독, 연출 중 누구의 말을 따라야할지 몰랐다.

\*율전 첫공이 끝나고 피드백이 없이 다음 공연 때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게 공연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술…이 문제였다.

8.기획

기획보조

-기획보조가 처음도 아닌데 , 이번 기획보조로서 처음 맡은 밴드 초대에 실수하고, 자잘한 실수가 많아서 여러분들께 죄송했습니다. 스탭 회의도 7월에 하나도 참여 못 하고 기획님이 혼자 다 캐리해야 했던 점 정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체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다른 팀은 다 조명팀들과 팀장,인데 왜 기획은 기획팀과 팀장이 아니라 기획과 기획보조인지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도 왜 기획팀이라 안 하고 기획보조라고 하냐고 저한테 말씀 하셨던 적이 좀 있으셨는데, 저도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보조라는 이름이 붙는만큼 주체적으로 기획 일을 찾아서 하기보다 대강의 흐름을 알고 기획님이 주는 일만 해 가고 그랬는데, 하면서도 너무 이 공연에 이바지 하는 것 없이 날로 먹는 것 같고, 기획 혼자 다 알아서 해야하니까 미안하고.. 아까 유진언니 얘기 나오는 것처럼, 기획과 통화가 안 되서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저는 기본 예산이 얼만지 지금까지 얼마나 썼고 앞으로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모르니까 그 치마를 사고 된다고 말을 못 해줬거든요. 일단 기획이랑 통화가 안 되면 다시 연락 달라고 끊었는데 계속 연락 안 되면 유진언니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야하니까 다시 전화해서 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기획팀이 동등한 위치에서 현 상황을 공유하고, 일을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기획 한 명이 다 알아서 주도하고 보조들한테 할 일 알려주는 것보다... 사람들이 예산 묻는 거나 이런것도 무능력하게 대답을 못 하고, 기획에게 물어볼게요 라고 해야해서 답답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획이 안 했는데 내가 말해도 되나? 하고 눈치보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기획님이 여러 재정난에 쫄리면서도 혼자 감당하고 처리한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저 까메오 문제 라고 하샸는데 제가 모르는 사이 있던 일 같은데 이걸 은별이 혼자 짐을 지게 하고 힘이 되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합니다

기획이 대관을 잘 해어야 했는데, 명륜 무대 설치가 철야가 안 되면, 하루 더 전날부터 무대 설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문사파랑 얘기해보던가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원활히 못 하게 되어서 당일날 촉박하게 진행된 것이 무척 죄송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첫공이었단 명륜 첫공날 어수선하게 진행되고, 공연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된 점...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밥.. 진짜 얘기하ㅕ고 했는데 1인 한 개가 아니라뭘 나눠 먹어야하고... 진짜 밥시간이랑 간식 시간마다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드리면서도 와 이거 먹고 연기해야하면 나는 기력 딸려서 캐스트 못하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이번엔 합평회 들으면서 , 캐스트, 스탭 각자 다 힘든 점들이 많았는데 나는 헤벌레 하면서 우리 공연 정말 좋다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 죄송합니다.

-기획일은 정말 많은 꼼꼼함과 희생정신을 요구하는 일인것같다. 공연 진행상황 전반을 꿰뚫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신경이 공연에 집중되어 있어야 해서 정신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나는 기획보조 일을 하는 초반에 우선 공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었음을 인정해야겠다. 그래서 해야할 일을 미루다가 기획님께 혼나기도 했고, 뭘 해야하는지도 잘 몰랐었다. 두달 가까이 공연준비를 하면서 점점 공연에 애정이 생기고, 일처리하는것에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한 이후에 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항상 내가 구멍인것같은 느낌이 답답한 와중에 기획님께 미안해서 속앓이도 좀 했었다. 하지만 공연이 끝나고 다시 생각해봤을때, 결국은 애정의 차이인것같다. 물론 기획일이 절대 쉬운일은 아닌데다가 내가 처음이라 미숙한 점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엄청난 전문지식을 요하는 일은 아니기에 내가 공연에 더 애정이 있었다면 더 잘 할 수도 있었을거라는 생각이 든다. 기획팀 일이 아니라 무대팀 일을 도와주는 것이 나는 훨씬 재미있었고, 잘 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으면서 무대에 애정이 생기니까 자꾸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다. 나는 다음에 기획일을 하지 않을테니, 기획이나 기획보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획을 왜 하고 싶은지 먼저 스스로 잘 생각해보고 맡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주고싶다. 그리고 3연속 기획일을 아주 깔쌈하게 처리해내고 있는 갓은별님을 많이 리스펙하고, 이제 공연이 끝났으니 기획과 보조 관계가 아니라 전처럼 친한 언니동생 관계로 재미있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로 피드백을 마치고싶다.

기획

결과적으로 보면 뿌듯한 점도 많고 그만큼 아쉬운 점이 많은 공연이었습니다!

일단 뿌듯한 점부터 말하자면 공연진 간 전체 단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2달전부터 연습을 시작했기 때문에 초반에 공연진 전체 술자리나 관극 엠티 등 행사로 다같이 단합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스탭분들이 동방을 항상 즐겁게 자주 찾아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 어느 공연보다 스탭 캐스트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뿌듯했습니다. 워크샵 때 제가 스탭분들을 잘 챙겨드리지 못한 탓에 워크샵 스탭분들은 극회가 “과제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친해질 기회가 많고 다들 열정과 친화력이 좋으신 분들이셔서 본격적인 일을 하기 전에 서로 단합이 이뤄져서 그런지 스탭분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만족스러웠던 점은 스탭분들 간의 일 분배나 참여도가 좋았습니다. 공연을 하다 보면 흔히 말하는 “프리로더”가 몇몇 있기 마련인데 이번 공연은 각 팀 팀장님들의 일 분배와 팀원들의 열정 덕분에 공연진 한분 한분의 공연에 대한 기여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부분이 너무 많지만 또 사과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대감독님이 스탭리딩을 도맡아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매주 모든팀과 모여서 회의를 해주시고 항상 스탭들의 전반적인 일에 신경써주셔서 제가 할 일이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획이라는 자리가 공연 전반적인 것에 신경을 써야하는 자리이고 원래는 스탭리딩도 도맡아서 하는 자리인데 무대감독님이 도맡아서 해주신다고 제가 스탭분들에게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해보자면 연출진님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획으로서의 일을 처리할 때 연출진님들의 최종 승인을 받고 모든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연락이 잘 되지 않아 많이 답답했습니다. 물론 하루종일 연습에 집중하시는 점 잘 알고 있지만 가끔은 안읽씹 당한다는 느낌이 (저만의 상상일 수도 있지만)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일들이 엄청 복잡한 것도 아니고 1-2분 정도만 투자하고 답장해주시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인데 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두번째로는 첫번째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가끔은 제가 연출진님들에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일들을 부탁 드릴때 (예를 들면 포스터 디자인 컨펌, 연출의 말 등) 언제까지 해달라고 부탁드리지 않고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그때까지만 해달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지키신 적이 제가 알기로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약속들은 (작은 것일지라도) 지켜야만 일 처리을 떠나서 신뢰가 쌓이는건데 그럴때마다 연출진님들에게 신뢰를 잃어갈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약속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하신가 여쭤봤을떄도 이 상황을 무마하려는 식의 답변들 밖에 저는 받지 못해 더 실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에 대한 존중이나 신뢰가 무시된다는 느낌을 공연에서 종종 받았습니다.일단 연출진님들에게 저는 많은 존중과 신뢰를 드리려고 노력했고 항상 서포트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의 판단하에 내려지는 결정들에 대해 의견전달을 넘어서 의견을 강요하시고 기획으로서의 제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스탭진 쪽에서도 저보다 경험이 많고 선배이신 스탭분들이 주를 이루기는 했지만 같은 공연진으로서 기획 대 스탭으로서 충분히 상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저에게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시는 느낌이 조금 아주 조금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극회 생활을 오래 한것은 아니지만 3번째 기획으로서 어느 정도 공연이 돌아가는 방향성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느낌을 받아서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기획보조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사실 기획보조가 애매한 위치입니다. 기획이라하기에도 완벽한 도우미 역할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위치인데. 제가 보조들에게 도우미 역할을 시켰으면서 기획의 태도를 바랬던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보조 친구들이 개인적 사정으로 밥을 배달 못해주거나 팜포티를 못가져다 주거나 했을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임이에도 마음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서 지금 돌이켜 보니 정말 미안하네요. 그리고 기획 보조가 나중에는 기획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육성하고 가르쳐줬어야하는데 모든 일을 제가 다 하려하고 나중에서야 분담을 좀 했던 것 같아서 제 자신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획보조들이 기획이 뭘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공연이 끝나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건 성균극회는 극단이 아닙니다. 저희는 즐겁게 공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고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극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 공연을 시작하는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연출진님들의 연출적인 욕심을 이해하지만 성균극회라는 단체를 더 이해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9.기타

-캐스트들이 스탭일을 너무 당연하게 도와줬던 것 같다.

-공연을 위해 첫날은 4시 공연 말고 7시 공연만 하면 좋을 것 같다.

-철거 목록과 계획 중요!

-앞으로의 공연비에 대해 상의가 필요할 것 같다.

-시연회에서 혼란이 너무 많았다. 무감과 연출진의 지시가 별로 없었다. 어떤 식으로 시연회를 할지 이야기가 없었다. 스탭이 방치되는 느낌이 들었다. 작업의 진행상황을 계속 체크하고 아는 상태로 공연을 준비해야한다.

-스탭끼리의 소통이 매우 좋았다. 무감님의 역량이 컸다고 생각한다. 덕분에 작업 효율이 올라간 것 같다.

-의소분 팀의 화장품을 쓰기 보다는 공연진의 안쓰는 화장품을 모아서 쓰는것이 좋을 것 같다.

-조명인력을 키워야할 것 같다.

-수고하셨어요 사랑해요><